조계종 교육아사리 신규 · 재위촉

신규 8명 · 재 13명… 총 45명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2일 2017년 신규 교육아사리 및 재위촉 교육아사리를 선정 ·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13일 개최된 '교육아사리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신규 교육아사리에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한문불전 △응용불교 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초기불교 분야에는 송탁(니) 스님이, 대승불교 분야에는 선응 · 현서(니) · 진욱(니) 스님이, 한문불전 분야에는 신경 · 선암(니) 스님, 응용불교 분야에는 혜장(니) · 재마(니) 스님 등 8명이 신규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 2014년에 위촉돼 3년이 경과한 교육아사리 스님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초기불교분야에는 현진 · 자목(니) 스님이, 대승불교 분야에는 현석 · 법상 · 현견스님이, 선불교 분야에는 정운(니) · 영석(니) 스님이, 한문불전 분야에는 원법(니) 스님이, 계율 분야에는 자현스님이, 응용불교 분야에는 정각 · 금강 · 오인(니) 스님이, 불교사 분야에는 형운(니) 스님 등 총 13명이 재위촉됐다.

교육원은 "2017년 신규 및 재위촉된 교육아사리를 포함한 총 45명의 스님들은 앞으로 승가교육을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담당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회의원 보궐 수덕사 · 대흥사 경선 예고

직능대표 일감 스님 단독 입후보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서 수덕사와 대흥사의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종훈)가 2월 1일 마감한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등록 결과 수덕사는 도신(서산 서광사 주지) · 허정(前 서산 천장사 주지) · 석청(前 서산 간월암 주지) 스님 3인이 입후보했다. 대흥사는 법상(대구 안일사 주지) · 범종(강진 고성사 주지) · 설도(영암 도갑사 주지) 스님이 등록했다. 또한 직능대표 사회분야에는 조계종 백년대계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종회의원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각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진행되며, 직선직 보궐선거는 23일 각 본사서 열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서울불학승가대학원, 역사의 뒤안길로…

조계종 교육원, 2월 8일 마지막 졸업식 후 폐교

서울과 경기 인근에서 전문적인 내전 공부를 이끌어왔던 조계종 교육원 부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이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8일 오후 3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서울불학승가대학원 제7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이후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더 이상 입학생을 받지 않고 폐교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2003년 '불교서울전문강당'으로 시작됐다. 시작은 뜨거웠다. 전문적인 한문불전에 대한 전통 강독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서울 · 경기 지역의 스님들이 앞 다퉈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었다. 또한 신심 높은 재가자들도 청강생으로 참여해 내전 공부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불학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1~2기 당시에는 육군 소장과 명문대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하기도 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이후 2011년 조계종 교육원의 승가교육개편이 이뤄지며 불교서울전문강당은 서울불학승가대학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특성화된 전문대학원과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등이 만들어지면서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입학 수요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실제 5기 이후에는 급격히 졸업생 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교육원은 7기를 마지막으로 폐교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정규 조계종 교육원 교육팀장은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학당으로 시작된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서울 · 경기 전문 학문불전 공부 열기를 견인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22개 전문승가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은 직영하는 것보다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지난 14년 간 2년 단위로 학사운영을 진행했고, 총 7기의 졸업 · 수료생이 배출됐다. 총 졸업 · 수료생은 286명(출재가 포함)이다.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대학원장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스님은 "처음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출가자 감소와 내전 공부에 대한 열기가 줄면서 입학자가 많이 줄었다. 아쉬운 일이다"며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전문 한문불전을 공부할 수 있는 강좌와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쉬운 것은 졸업생들도 마찬가지다. 7기 찰중 소임을 맡았던 대웅 스님은 "현대적으로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아졌지만, 전통 방식으로 불전을 볼 수 있는 곳은 몇 곳이 되지 않는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그중 한 곳"이라며 "재가자들의 열기도 높았던 것이 인상깊다.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군승으로 참여한 지안 스님(공군 3여단 호국흥익사 주지)은 "처음 강의를 들을 때에는 천안 부대에서 근무해 휴가를 내고 올라와 참여했다. 정작 휴가가 필요할 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문 한문불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더 기뻤다"고 밝혔다.

마지막 재가 수료생 2인 중 한 명인 김진숙(서울 강남구 · 50) 씨도 "한문불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곳은 많지 않다. 한문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소개 받아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며 "전문적인 한문 불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계기들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숫자로 본 서울불학승가대학원

- 14년 — 2003~2017년 운영
- 7기 — 2년 단위 학사. 7기 배출
- 286명 — 출 · 재가자 총 졸업 · 수료생

2003년 '불교서울전문강당' 시작
14년동안 7기, 286명 졸업 · 수료
서울 · 경기서 내전 공부열기 견인
재가자도 청강생 참여해 탁마키도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 '퇴역'
"전통 방식 내전 공부 관심 갖길"



사진 오른쪽부터 이날 법회에서 입정 중인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 간사장 이원욱 의원, 국회직원불자회 손충덕 회장의 모습.

국가안정의 길 찾는 좌선 삼매 '눈길'

2월 1일 국회 정각회 정각법회 개최

정국이 요동쳤던 2월 1일, 국회 지하 정각선원에서는 정각회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진행된 법회에서는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간사장 이원욱 의원과 손충덕 국회직원불자회 회장 등 직원불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각법회가 열린 시각, 국회에서는 반기문 前 UN사무총장의 국회 예방에서의 급작스런 대선후보 사퇴 선언이 있었으며, 이런 상황으로 정각법회에도 국회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이날 법회에서 주경 스님은 "신출가, 심불출가라는 말이 승가에 있다.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세속에 있는 이들을 칭하는 말"이라며 "반대로 재가자에는 신불출가, 심출가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다. 몸은 비록 세속에 있지만 마음은 출가자와 같도록 하자"고 말했다.

주호영 정각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국가 안정과 화합,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정각회원들도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박유하 1심 무죄 "반인권적 판결"

나눔의집 강력 반발… 검찰, 1월 27일 항소장 제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씨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집이 "공정하지 못한 반역사 · 반인권적 판결"이라 항의했다.

나눔에집 측은 1월 25일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고 박유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정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자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 반인권적 판결"이라며 "관련 민사재판에서 사실적시라고 인정한 부분들을 모두 '의견표명'이라 치부했다. 박유하의 29개 표현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힘든 '의견표명'이라 했으며 나머지 5개만 사실적시로 인정했다. 5개 표현마저 할머니들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1심 선고에 불복, 1월 27일 박 교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상태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서 진행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천태종, 제16대 종의회 원구성 마쳐

의장 도원 스님 · 부의장 세운 스님 · 김우영 의원 선출

천태종이 제16대 종의회 원 구성을 마쳤다. 의장에는 도원 스님이, 부의장에는 세운 스님과 김우영 재가의원이, 총무분과위원장에는 도웅 스님이, 법제분과위원장에는 진덕 스님이, 재무분과위원장에는 보광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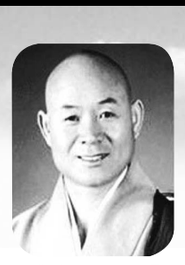
천태종 종의회는 1월 26일 단양 총본산 구인사서 제102차 임시종의회 및 제16대 종의회 개원종의회를 열고, 신임 의장단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종의회 의원은 비구스님 16명 · 비구니스님 3명 · 재가불자 11명 등 총 30명으로 종헌 제63조 1항에 의거해 전형위원회서 선출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